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LIES WE TELL OURSELVES

가제 : 나에게 하는 거짓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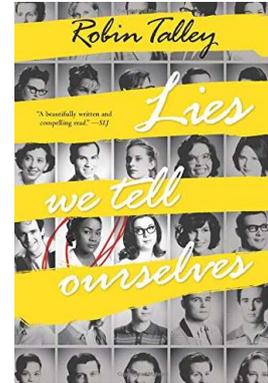
저자 : Robin Talley

출판사: Harlequin Teen

발행일: 2014년 9월 30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백인들만 다니던 학교에 첫 발을 들인 열 명의 흑인 학생들, 새로운 역사의 흑독한 첫 장을 열다

1959년 버지니아 주, 고등학교 3학년생인 새라는 여동생 루스를 비롯한 다른 여덟 명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 다니게 된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마을 반대쪽에 있는, 1층짜리 낡아빠진 건물이 전부였지만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커다란 2층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도 없는 제퍼슨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건, 지난 여름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흑인 사회와 백인 사회의 통합에 관한 그 역사적인 법은 흑인 학생들이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새라의 아빠를 비롯해 ‘흑인 지위향상협회’에 소속된 어른들은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최초로 백인 학교로 옮기게 된 새라와 아이들에게 세 가지 규칙을 알려주고 명심하라고 하셨다. 첫째, 백인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갈 것. 둘째, 교실에서는 필요할 때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맨 앞줄에 앉을 것. 셋째, 최대한 열 명이 모여서 같이 다닐 것. 하지만 기죽지 말라는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제퍼슨 고등학교 정문을 가득 메우고 기다리는 인파를 보자 아이들을 잔뜩 주눅이 들었다. 특히 루스와 같은 1학년 신입생들은 저들이 침을 뱉거나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 제대로 걸지도 못했다. 새라는 그럴수록 어깨를 더 쭉 펴고,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새라 역시 속에서는 심장이 미칠 듯이 쿵광대고 두려워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까지 웅웅거리는 지경이었지만, 동생들이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에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용기를 겨우 끌어 모아 들어선 학교 안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곳은 학교가 아닌 지옥이었다.

흑인을 향한 증오심을 한 정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수백 명의 학생들, 멀쩡한 이름 대신 ‘깡동이’로 부르는 건 기본이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데 아무 이유없이 때리고, 수업 중에도 날카로운 온갖 물건들을 던져대는데 선생님들은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아무리 심한 폭력도 백

인 학생이 저지른 건 다 용서가 됐다.

서로 미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흑인 소녀와 백인 소녀의 특별한 우정, 뜻밖의 감정들

버지니아 주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인종차별 저항운동 덕분에 꼭 닫혀 있던 백인 전용 학교의 교문은 열렸지만, 그 속에 처음 들어선 새라와 다른 흑인 아이들은 상상 그 이상의 모욕과 욕설, 폭력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특히 이 학교에 다니는 린다는 아버지가 인종통합에 누구보다 반대하는 지역 신문기자로 유명한 터라 유난히 큰 소리로 흑인들을 경멸하던 아이였다. 린다는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방식대로 이들을 놀리고 괴롭히면서, 새로 전학 온 흑인 학생들을 다시 쫓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새라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되었다. 항상 우등생에 장학금까지 받던 영리한 아이였지만 이 학교에서는 전학을 오자마자 성적과 아무 상관없이 바보취급을 받고 열등반에 배정된다. 교실에서는 새라가 앉아 있는 책상 주변에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고, 점심 시간에도 같이 밥을 먹으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새라가 이 모든 모욕을 다 견디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오직 하나, 동생 루스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그러나 린다와 새라가 어쩌다 과제를 함께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학급 프로젝트를 함께 맡은 린다와 새라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처음에는 아무 것도 함께 할 수가 없었다. 린다는 ‘흑인을 옹호하는 건 올바른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귀가 따갑게 들어온 아버지의 말대로 흑인은 당연히 미워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어쩔 수 없이 새라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생기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익히 들었던 것처럼 흑인들의 피부는 비늘이 덮인 것처럼 거칠지도 않았고, 당황스럽게도 새라는 지금껏 만난 어떤 친구들보다 말이 잘 통하는 아이였다. 서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은 건 새라도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서로를 멀리하고 싫어해야 마땅하다고 여기던 두 소녀는 서로에게 느끼는 호감에 스스로 당황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겉으로 보이는 둘의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아.”, “남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안 써.” 서로 다른 의미로 이런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해가며 주장하던 생각들이 뿌리부터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린다와 새라는 서로를 통해 자신의 진짜 생각, 진짜 목소리를 찾아간다.

<저자 소개>

로빈 툴리(Robin Talley)는 인종차별, 사회정의 운동을 벌이면서 십대 청소년들을 위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THE NEAREST FARAWAY PLACE

가제 : 제일 가깝고도 먼 곳으로

저자 : Hayley Long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신나는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끔찍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두 형제

하나뿐인 남동생 그리프가 열세 살 생일을 맞이한 날, 딜런의 가족들은 작은 미니쿠퍼를 타고 기온이 40도로 폭폭 찌는 뉴욕 인근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던 여름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나른하고 아쉬움 마음이 줄곧 가지지 않았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 그리프는 생일 선물로 얻은 스마트폰으로 한 동안 게임에만 몰두하더니 이내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한탄하기 시작했다. 딜런은 쉴 새 없이 투덜대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난 며칠 간의 휴가를 떠올렸다. 네 가족은 산뜻한 초록색에 흰색 줄이 선명한 미니쿠퍼를 타고 어디든 발길 닿는 곳으로 신나게 달려갔다. 캣스킬 마운틴에 올라 스완 레이크에서 수영도 하고, 버몬트 주에서는 아이스크림 공장에 가서 ‘허니 할라피뇨’라는 기상천외한 맛의 아이스크림도 맛봤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도넛 상자를 안고 관람한 보스턴 레드삭스와 야구경기도 절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분 좋은 음악, 투덜대는 그리프를 놀려대는 엄마아빠의 애정 가득한 말들, 딜런이 가장 좋아하는 특유의 눈짓을 조수석 앞에 달린 거울로 간간히 보내오는 엄마,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뉴욕 외곽의 풍경들, 딜런은 이 모든 장면과 소리를 눈과 귀에 담으며 어서 집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차 앞 유리에 볼트나 나사못처럼 생긴 금속 하나가 날아와 툭, 부딪혔다. 잠시 뒤, 옆에서 계속 수다를 떨던 그리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차체가 분리된 거대한 트레일러가 미니쿠퍼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차 안에서 살아남은 건 두 형제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 순간 고아가 되어버린 딜런과 그리프는 구급차로 실려온 병원에서 5일을 보내고, 돌봐줄 이모와 삼촌이 있다는 영국 웨일즈로 가야만 했다. 태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척들이라니, 엄마아빠를 잃었다는 사실도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형제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둘만 덩그러니 남았다. 모두 친절하고, 필요한 건 다 제공해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만 딜런은 그리프가 어딘가 변해버린 사실을 눈치챈다. 엄청난 일을 겪은 동생이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가능할 수가 없었다.

이겨낼 방도가 없는 슬픔, 비극적인 운명을 딛고 다시 집을 찾으려는 두 소년의 끈끈한 형제애

두 형제는 아기 때부터 부모님과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 두 살 터울이 나는 딜런과 그리프는 아기일 때 런던에 살다가 원헌에서 유아기를 보냈다. 상하이에서 지낼 때도 아직 꼬맹이 티를 벗지 못했고, 바르셀로나에 살 때쯤 되어서야 겨우 어린이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브루클린에서는 둘 다 스스로를 동네에서 가장 멋진 영국 아이라는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직업이던 부모님은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다니며 다양한 제자들을 키우며 살았고 그 옆에는 항상 형제가 있었다. 딜런과 그리프는 마틸다, 막심, 이브라힘, 리, 데밀리오, 레스터 등 국적도, 피부색도, 생김새도 각양각색인 친구들을 사귀고 여러 나라 말로 ‘안녕’ 인사를 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랐다. 다행히 이런 떠돌이 생활이 잘 맞았던 두 사람은 다른 형제들처럼 가끔은 몸싸움도 하고 서로 짓궂게 놀리거나 약을 올리기도 했지만, 딜런은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마치 쌍둥이처럼, 그리프와 자신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끈이 말을 하지 않아도, 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딜런은 다 읽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둘만 덩그러니 남은 지금, 딜런은 그리프가 잘 견디고 있는 중인지 괜찮은지 도무지 안심할 수가 없었다. 늘 믿었던 그 유대감도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형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을 아주 조금씩 견디며, 회피하고 싶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감정들, 보내야 하는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한 두 형제의 애달픈 노력과 서로를 향한 애정은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

<저자 소개>

헤일리 롱(Hayley Long)은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다. 데뷔 소설인 『LOTTIE BIGGS IS NOT MAD』는 국제 청소년 도서관(International Youth Library)이 우수 아동문학에 수여하는 ‘화이트 레이븐(White Raven)’ 라벨 도서로 선정됐고, 『WHAT'S UP WITH JODY BARTON?』은 ‘코스타 도서상(Costa Book Award)’ 결선 후보에 올랐다.